

**사설**

**북한산 관통 의도를 버려야 한다**

정부는 북한산 국립공원에 길이 4km, 폭 40m에 이르는 장대터널을 뚫으려는 것인가. 절대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 국립공원이며, 국립공원 내에서는 개인 소유의 땅일 지라도 재산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불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국립공원이 지닌 자연생태·역사문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후손들의 세대에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와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불교계와 많은 시민·환경 단체들이 2년여 동안 반대활동을 펼쳐왔던 것이다. 특히 불교의 환경활동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현하는 거룩한 신앙행위이며, 나아가 가르침 그 자체라는 의미를 지닌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치신 핵심 내용은 연기(緣起)와 자비(慈悲)인데,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과 온갖 미물도 당연히 '나'를 형성하는 또 다른 나이다. 따라서 자연과 온갖 미물은 자비를 베푸는 대상이기 이전에 귀히 여겨야 할 '우리'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불교계는 환경의 문제에 대해 말쑥이 떨어져서 벌어지는, 우리와는 무관한 남의 일인 양 너무나 무시했다. 이제야 환경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 몇몇 스님들의 말 마디 언사로는 표현하기 힘든 처절한 호소와 불교환경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연기와 자비의 가르침에 한 발짝 다가가고 있다.

그런데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정부의 최근 행태를 보면 너무 치졸하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선 재검토위원회 위원 다수의 '관통 불가' 의견도 무시하더니, 최근에는 불교계가 공론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곧 노선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장은 분명히 공론조사를 거부하지 않았다. 관통노선과 비교할 수 있는 몇 개의 대안노선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공론조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선이 결정되면 전통문화와 환경의 문제가 충분히 고려된 노선설계를 하자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 그런데 정부가 조계종의 이 같은 입장을 공론조사 거부로 받아들인 것은 관통노선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 하나, 정부는 12월 안에 노선을 결정하겠다는데, 근거가 무엇인가. 공론조사를 하자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6개월여의 기간이 필요한데, 12월로 시한을 잡은 것은 공론조사를 형식적인 절차적으로 여겼음을 고백한 것이다. 정부의 결정이 이런 식으로 이뤄지니 갈등이 진정되기는커녕 증폭되는 것이다.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를 반대하는 불교계와 환경단체를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매도하기에 이른 것은 치졸함의 극치이다. 환경과 수행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태이며, 잘못된 개발정책의 책임을 떠넘기는 구태의 전행이다. 또 총리실의 한 공무원이 "관통노선을 결정해도 불교계의 반발이 일회성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이는 불교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막말을 해대는 사람이 고위 공직에 앉아있는 한 우리 사회의 갈등은 합리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정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에 임해야 한다. 불교계와 시민·환경 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게 경청하고, 사회적인 합의절차와 환경과 문화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지금 다시 그 기회 가 왔다.

부모 없는 아이들은 따뜻한 방 안에서 편안히 잠을 청해도 웬지 춥다.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이다. 버려진 아이들, 무의탁 독거노인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 연말을 보내는 불교단체들이 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깔끔하고 으리으리한 행사장에서 풍성한 음식을 즐기는 송년모임을 대신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훈훈한 연말을 맞고 있다.



**이웃 위한 아름다운 송년**

불교단체들, 즐기는 모임 대신 어려운 이웃과...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12월 30일 74명의 부모 없는 아이들이 지내는 의정부 선재동자원을 찾아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다. '즐기는 문화'를 나누며 화합하는 문화로 바뀌 '나가자'는 취지에서다. 이 자리에는 불교환경연대 실무자와 회원들도 동참한다.

금양단봉자연화회 회원 30여명은 20일 버려진 아이들이 지내고 있는 수원 '행복한집'을 찾아 성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일일 봉사활동을 펼쳤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어려운 이웃의 빛을 탐감해주고 큰 덕을 나누는 '동지 포탁'에 착안해 12월 한 달 동안 후원금을 모아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등 4명에게 성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중앙신도회 이상근 총무부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송년문화가 불교계로부터 우리 사회에까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태고종 종회의장 인공스님 추대**

새해 예산 81억원 책정



12월 18일 열린 태고종 제 11대 중앙종회 개원총회에서 의장에 인공스님을 봉헌사 주지·사신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부의장에는 원봉스님(총무원 부원장)과 대은스님(인철교구 중무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이어 제88회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전통불교문화센터(총무원 청사) 건립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의 사업을 2004년에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81억1천6백여만 원을 책정했다.

한편 태고종 중앙종회는 총무원 부원장에 교무부장 학현스님을 선출했으며, 교무부장에 법현스님(동방불교대 교학처장), 사회부장에 백은스님(강원교구 총무원장)을 인준했다. 박봉영 기자

**원웅·원혜스님 징계 조계종 초심회계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당선 무효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던 간월암 원웅 스님에 대해 벌칙 징계가 선고됐다. 또 보우당 불사와 관련해 공금 유용으로 물의를 빚었던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에게는 공판정지 3년이 내려졌다. 조계종 회계원은 12월 21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38차 초심회계원을 열어 이같이 징계를 확정했다. 한영우 기자

**“대적관 여니 만고에 당당한 면목”**

합박는 속 서옹 큰스님 영결·다비식

은통 눈으로 뒤덮인 다비장. 서옹 대종사가 세속의 마지막 인연을 버린 날, 세상은 스님의 청정 수행자 모습 그대로 하얗게 수놓아졌다. 서옹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그렇게 합박눈이 내리는 가운데 12월 19일 백양사 대웅전과 다비장에서 봉행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원로회의 의장 도원 스님,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각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영결사에서 “대종사께서 평생을 한밤중 밝은 달이 되어 천지를 밝히고, 석화(石火)를 일으켜 정(正)과 사(邪)를 판별해주셨다”고 추모했다. 원로회의장 도원 스님은 “이제 어두운 길을 누구에게 물어 출신탈로(出身脫路)를 열어야 하느냐”고 안타까워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조운제 청와대 불자회장이 대독한 조사에서 “대종사께서 남기신 큰 가르침을

좌탈모습 그대로 팔각전통한옥 상여로 이운 폭설로 내빈들 뒤늦게 행사장 도착하기도



◇서옹 스님의 법구가 안치된 연화대에 불이 붙여지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교구본사 주지, 백창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조순형 새천년민주당 대표, 이태일 열린우리당 공동의장 등 3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종정 법전스님은 영결법어에서 “노승이 스스로 대적관(寂關)을 여니 만고에 당당한 면목(面目)이 드러나 있다”며 “노승의 진면목은 분명하고 명백하나 찾아보면 흔적이 없고 아득하고 심오하나 지금 눈 앞에 나타나 있다”고 법문했다.

소중한 표표로 삼고, 은 국민과 함께 기린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영결식이 끝난 뒤 서옹 스님의 법구는 일광정 앞에 마련된 다비장으로 이운됐고 곧바로 다비식이 치러졌다. 팔각지붕 전통한옥으로 제작된 상여는 전국 선방 수좌 24명이 됐다. 법장스님과 원로의원 스님들이 연화대에 거화를 했고, 서옹 스님은 그렇게 세속의 연을 벗었다. 장성=이준엽 기자

**영결·다비식 표정**

○...영결식이 시작된 오전 11시 까지 폭설로 인해 주요 내빈들이 뒤늦게 행사장에 도착하는 등 대부분의 참배객들이 애를 먹었다. ○...서옹 스님의 법구를 이운한 상여는, 스님의 좌탈입방에 따라 앉아계신 그대로 팔각지붕 전통한옥으로 제작됐다. 스님의 상여는 문화재 보수기술자 양승문씨가 12월 14일부터 나흘간

제작했다. ○...장의위원회는 영결식 추모입장시 영결식장에 설치된 멀티비전을 통해 “참사람의 본래면목 자리에서 역사를 창조할 때 인류가 살 수 있다”는 내용의 서옹 스님 화상 법문을 방영했다. ○...연화대에 불이 붙자 일부 불자들은 큰 스님의 마지막 가시를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생사가 틀어 아니건만 스님을 떠나보내는 불자들에게는 큰 슬픔이 아닐 수 없었던 듯.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http://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http://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http://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야문' [www.yosiamun.com](http://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대한불교 대승종 종도 여러분께**

본 종단은 중현종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총무원장 중심제로 종단의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중권쟁탈을 위해 일부 몇몇 사람의 해종 행위로 인하여 종단이 일파만파 된 것을 전 종도들이 단합하여 종단의 위상을 정립하고 더욱더 종단 발전에 거듭날 것을 당부 드리며 다음과 같이 그 과정을 알려 드립니다.

1. 그간 불순한 마음을 가진 몇몇 종도들이 불법적인 행동으로 중권을 쟁탈하고자 지난 11월 29일 11시에 약 20여명이 흥도사에 모여 소위 종도 총회란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비상대책 위원회라는 불순한 조직을 만들어 12월 12일에는 새로운 총무원장이라면서 박기현(일명:박성원)스님을 내세우는 초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2. 더욱이 이들이 내세운 박기현(일명:박성원)스님은 **종정 도암스님의 친아들**이며 현재(2003년) **조계종 승려**로서 본 종의 중현종법 중 상벌법 제18조(체탈도침, 제적) 7항(본 종의 승적을 취하고 있으면서 타 종단의 승적을 공유하거나...)에 해당되는 승려이며, 이는 마땅히 체탈도침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탈법적 종도회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본 종단에서는 불기 2546년전 전 교육원장 법타스님이 이종 승적(태고종)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제적된 예가 있습니다. 고로, 조계종 승적을 가지고 대승종 총무원장을 하겠다는 박기현(일명:박성원)스님의 의도는 우리 대승종 전 종도의 위상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원래 본 종단에 총무원장 자격은 중현종법 145페이지 중무직원 자격표에 의하여야 (55세 이상) 되는데 총무원장이라 자칭하는 박기현(일명 박성원)스님 연령이 만50세 이므로, 자격이

-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자칭하는 아도정사 법효스님이 몇몇 사람을 모아놓고 총무원장을 선출 했다고 하며 언론에 기사화해 줄 것을 요청한 몰지각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현종법도 모르는 자가 종회의장 이라니... 예로써, 불기 2541년 9월 23일 7대 총무원장 선출시 법찰(승원전)스님이 단종 출마하여 총무원장에 당선된 바 있으나, 위의 자격(연령)요건이 미달하여 당선이 취소된 적이 있으며 총무원장 행세를 하여 제적시킨 바가 있습니다.
- 이들의 행위는 **종정 친아들이라는 것을 내세워** 중권을 차지하려는 파렴치한 소행임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히, 조계종 종적부에는 “기현”으로 되어있는 법명을 감추고자 “성원”으로 범명까지 바꾸어 이중신분으로 본 종단의 중권을 탈취하려는 파렴치한 가공할 행위를 우리는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파사현정의 정법 아래 이들을 응징하고 여법하게 종단의 중풍을 바로잡아 화평하고 번영하는 종단을 만들고자 아래와 같이 **종도 비상총회**를 소집하오니 불사 다망하신 중에도 참여 하셔서 종단의 위신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종도 비상총회 일시** : 2003년 12월 26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총무원 만장사 큰법당
- **전화** : 031)448-8811

2003년 12월 15일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법도 일오**